

“바울의 간증”

사도행전 21:37-22:11

오늘 분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건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는 오히려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을 부정하다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기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는 그의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2,3 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으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은 고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성난 군중들은 그를 잡아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로마군이 달려와 바울을 구출합니다.

천부장은 상황을 알아보고자 했지만, 성난 군중들은 저마다 자신의 말을 큰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그 실상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말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난 군중들을 향해 자신이 예수를 만난 과정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미 많은 구타와 핍박으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말할 힘이 없을 법도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 혼신의 힘으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행 21:39)

바울은 자신이 작은 동네(소읍)이 아니라 길기리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발언권을 얻은 후 자신의 말을 이어 갑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행 21:40-22:1)

사도 바울은 방금전까지 죽도록 매를 맞았지만, 그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직 군중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후에 자신에게 익숙한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난 군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이 자신들에게도 익숙한 히브리말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행 22:2-3)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 문하생임을 밝힙니다. 자신의 출생과 더불어 학문적 배경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 학파는 당시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학파로서 전통적인 율법을 가르쳤던 중요 학파였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학파를 언급한 이유는, 자신이 정통학파이며 지성인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바울은 자신도 예전에는 당신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 섰던 사람임을 스스로 밝힙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행 22:4-5)

예수 믿기 전에도 그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또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

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 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행 22:6-8)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음성을 오직 바울만 듣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광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직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감격의 순간이 있었기에 그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 전도 사역에 자신의 생명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키게 된 바울은 즉각적으로 주님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행 22:10)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창조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에 대한 질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주님은 그저 ‘다메섹으로 가라’고만 하십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말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막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바울에게 가장 안정적인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마침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후로 수많은 고난과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전도 여행을 통해 험난한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에 넘어지거나 굴복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곳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을 통해, 간증이 있는 삶,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바울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들을 향해 자신이 예수 믿게 된 배경과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에게는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나눌만한 간증(스토리)가 있습니까? 밑줄 그은 부분을 토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거나 다짐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